

“대장~흥대선에 DMC역·상암고역 설치해야”

마포구 ‘합리적 철도 인프라 구축’... 행정소송 제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대장~흥대선 광역철도(이하 대장흥대선) 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 중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현재의 사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5년 12월19일 총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교통

부의 대장흥대선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부권 교통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기능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사업 계획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핵심 환승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 구와 마포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상암7단지 앞 상암고역 신설의 필요성도 강력히 피력했다. 해당 구역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암역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상암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사’ 추가 설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된 상암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핵심 환승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대규모 주거단지 및 학교 밀집 지역에 ‘상암고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디지털미디어 시티 환승역과 상암고역은 주민의 편의를 넘어 서울 서부권 교통체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며

“이번 소송은 단순 지역 이기주의로 역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닌, 잘못 설계된 교통망을 바로 잡아 합리적인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의 행정적 협의와 주민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고, 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체계 구축과 상암고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찬호 기자 mmh@siminilbo.co.kr

성동구, 중앙청 생태계 보호·생물 다양성 회복

대우건설·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오는 10월까지 프로젝트 가동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대우건설, 사회책임공동체환경과 함께 ‘중앙청 생물다양성 회복 및 증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청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호 및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생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을 총괄

하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사회책임공동체환경은 생태 가꾸기 및 프로그램 운영을, 대우건설은 친환경 거점 조성, 수질 서식환경 개선 및 환경정보화 등 임직원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본 프로젝트는 중앙청 가림교 인근 일대 약 2만㎡ 규모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생태 보전 활동을 확대하고, 중앙청 생물다양성 회복과 시민 친화적 하천 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

김포시, 9월부터 신청 접수

경기 김포시가 총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가며, 오는 9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총 7대를 선정하고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유 승용 또는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통학차량 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제설대책상황 점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서울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보됨에 따라 구 제설대책본부를 찾아 제설대책 체계를 점검했다. 사진은 진 구청장(왼쪽)이 강성철을 비롯해 제설 장비와 인력 운영 현황, 취약지역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제설대책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10~12일 공장 밀집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부천시,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

서대문구, ‘자원순환 공간’ 운영

재사용·생활용 제품 프로 제공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가 2024년 자원순환박람회, 2025년 파산림파켓에 이어 올해 일명 ‘이어쓰기 선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쓰기 선반’은 사용하지 않거나 쓸 수 있는 물품을 주민이 기증하고 이 개수만큼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자원순환 교환 공간’이다.

구는 생활 속 주민 참여형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서대문 자원회생센터(보라매로 369) 1층 홍보관 입구에 설치했다.

구는 ‘이어쓰기 선반’ 운영과 함께 새해에도 자원순환 교육, 재사용·생활용 제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경기 부천시는 수도관대기환경청과 함께 오는 10~12일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12일부터 3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관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레이

콘 사업장과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우선 조사한 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지,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

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조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부천시,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

“인천 강화~서울역 급행 M버스 노선 신설을” 모든 행정 역량 집중

郡, 범군민 서명운동 돌입

인천 강화군이 ‘강화~서울역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유치를 위해 대규모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대대적인 행정력 집중에 나선다.

군은 2025년부터 서울역 직행 M버스 신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관계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군은 올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열의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 공모 신청서 함께 제출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첫 행보로 2일 오전, 강화군 공직자들은 ‘강화~서울역 M버스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노선 신설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 결집을 선언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부천시,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

설 연휴 맞아 화재 취약시설 관리

송파구, 내일 화훼마을 현장 점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화재취약 시설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인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새마을 시장과 ▲마천중앙시장, 화재 취약 구조인 ▲장지동 화훼마을 일대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송파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분야별 전문장비를 활용해 화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새마을 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을 방문, 유관기관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각종 조리시

설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장기 및 가스 누출 등 화재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소방통로 확보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난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였다.

▲화훼마을은 지난 1월16일에 실시한 구 자체 긴급 점검에 이어, 4일 소방·전기·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정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 급증에 따른 누전 및 과부하 여부, 가스 누출 점검,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대피로 확보 등을 중점으로 상세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설 명절 17·18일 생활쓰레기 미수거

13일까지 모든 지역 환경정화활동도

서산시, 쓰레기 대책 시행

충남 서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을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리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설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일정 안내 ▲환경종합상황실·기동처리반 운영 등이다.

먼저 시는 설 명절 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일

까지 공직자,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내 전지역을 청소하는 ‘설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대청소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귀성길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도로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 연휴 쓰레기 수거 일정은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으며, 그 밖의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수거될 예정이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2

살고있는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장을 탈바꿈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해졌습니다.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인천하늘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